

2026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국문)

開 會 辭

2026. 9. 2. (수) 09:05~09:10 (5분)

이화여대 이삼봉홀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저탄소 전환시대의 미래 금융”을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2026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사를 위해 친히 축사를 맡아주신
한성숙 국무총리님,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님,
Colin Crooks^{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
Mizushima Koichi^{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Philippe van Hoof^{필립 반 후프} (유럽상공회의소) 의장님,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님과
주요 외국계 금융사 대표님들,
그리고 컨퍼런스를 함께 주최해 주신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후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통찰을
나누어주실 연사님들과 토론 좌장님들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으며,
네팔·티벳에서는 빙하 붕괴에 따른 초대형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기반 시설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유럽은 폭염으로 인해
GDP가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등 차주의 손실을 발생시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주요국 금융 감독당국들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여
글로벌 기후금융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금융 감독당국과 글로벌 금융회사가
함께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Ⅲ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감독당국의 대응방향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금융감독원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전환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형 전환금융”의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전환금융을 도입한
유럽과 일본의 제도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최적화하여 마련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정합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투명한 기후공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기후공시 확대 요청과
저탄소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해
'28년부터 기후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의
저탄소 전환계획 등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도 기후공시 기준에 부합한 공시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이 금융권의 신성장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21년}하고
동 지침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의 금융권 영향을 측정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께서는

최근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함께 시도한 일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Simon Stiell, UN 기후회의 개막식 연설('26.6.8)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늘 모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제 컨퍼런스가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